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 광야의 소리

## Voice in the Wilderness

3/4월호  
2016년



한인회소식

Plum flowers

### 한인회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한인 여러분,  
2월 20일 오후 3시에 한인회관에서 정월대보름 잔치가 있었습니다. 65명 이 참석하여 이옥주 이사님의 사회로 즐거운 잔치였습니다. 오곡밥과 진수성찬의 나물들로 한 상이 차려졌고 흥겨운 민속춤/이희정, 가곡/김레베카, 하모니카 연주/이경화장로, 그리고 볼룸댄스/김화순,로 펼쳐졌습니다. 또한, 식사 후 2부에는 가라오케 경연대회와 게임으로 많은 웃음을 선사 받았구요. 어버이들께 쌀 한 포대씩 선물을 드렸고 푸짐한 상품들 추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물들을 제공해주신 코윈, 최신옥, 아리랑마켓, A-1마켓, 임넨시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참해주신 분들, 사정상 참석은 못했지만 뒤에서 성원을 아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김영신/뉴멕시코 한인회장 ■



### 2016년 3/4월호 내용

- 한인회소식 | 한인회장 인사 | 김영신 : 1
- 한인회소식 | 순회영사업무/한국학교 광고 : 2
- 한인회소식 | 대보름 잔치 : 3
- 한국학교소식 | 뉴멕시코 한국학교소식 | 김레베카 : 4
- 지역사회소식 | KOWIN 지회장 취임사 : 5
- 지역사회소식 | 노강국 목사님 소천 : 6
- 수필 | 봄-꽃 | 이정길 : 7
- 지역사회소식 | 무료 원예강좌 개강 : 8
- 생활정보 | 행복한 미국생활(7) : 9
- 칼럼 |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 김기천 : 12
- 미술시리즈 | 앙리마티스의 두번째 이야기 | 심유진 : 13
- 교계소식 | 세계기도일 예배 여선교회주최 : 15
- 지역사회소식 | 광야의소리 페이스북 개설 : 15
- 지역사회소식 | 주택시장동향 | 김영신 : 16
- 기도문 | 2016년에 드리는 기도 | 최영심 : 16
- 설교문 | 은혜안에 사는 사람 | 김정근 : 17
- 광고 | 뉴멕시코 한인교회안내 : 19
- 광고 | 뉴멕시코 한인업소 안내 : 20

## 한인회소식

## 순회영사업무



주LA총영사관은 뉴멕시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2016년 상반기 순회영사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순회영사업무시 여권, 가족관계등록(출생·혼인·이혼·사망), 국적(상실·이탈), 병역(국외여행허가), 공증(위임장 등 영사확인), 재외국민등록(등록·등본발급), 사증(한인만 신청 가능), 신원조사증명서 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

2. 실시일정 및 장소 : 3월10일 목 10:00-14:00

3.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뉴멕시코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김영신 한인회장 505-321-7695 yongfre@yahoo.com

○ 민원업무 내용 등 문의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 이메일 : consul-la@mofa.go.kr

- 전 화 : 213-385-9300, 내선번호 15 또는 52

## 뉴멕시코 한국학교 2016 년도 봄 학기 학생모집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높은 자질과 소명감을 고루 갖춘 교사진들을 모시고

2016 년도 봄 학기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개강날짜: 2016년 1월 28일(목) 오후 5- 7

2016 년 1월 30일 (토) 오전 9:15- 오후 12:05

대상: 유치원 - 12학년, 성인반

과목: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특별활동 ( 한국 문화/역사, 미술, 동요, 고전, 태권도)

등록처 : 한국학교 사무실

문의: 김레베카 교장 (505) 331- 9660, NMKoreanlanguage@gmail.com

수업료: 학기 150불 (목요일 또는 토요일 수업을 선택할수 있음)

### 2016 Spring

####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The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invites you to the 2016 Spring school year with highly motivated and qualified teachers.

First Day: Jan. 28 (Thurs) 2016, at 5:00pm thru 7:00pm

Jan. 30 (Sat.) 2016, at 9:15am thru 12:05pm

Enrolling: K - 12th grade, Adults

Subjects: Korean-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cial courses- Korean History & Culture, Art, Music, TaeKwonDo

Register: NM Korean Language School

Contact: Rebecca Kim, Principal of the Korean Language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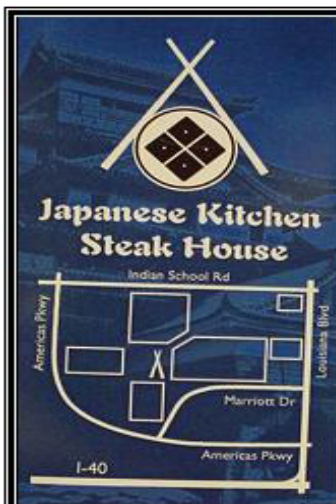
(505) 331- 9660, NMKoreanlanguage@gmail.com

Tuition: \$150 (You choose once a week either on Thursdays or Saturdays - Please indicate preference during registration)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BQ, NM 87112

www.kaanm.com



## Japanese Kitchen

###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http://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72.1166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http://www.japanesekitchen.com)



## 대보름 잔치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뉴멕시코 한인회관에서 정월 대보름 잔치가 있었다.

옛말에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부득이 객지에 나가 설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이도 보름에는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한다는 뜻이다. 우리 조상들의 세시풍속에서 정월 대보름은 다 같이 둘러앉아 새해 첫 보름달을 보며 한 해 풍년을 소망하는 중요한 날이었다. 올해도 본국의 전국 곳곳에서는 부럼을 깨고 달집을 태우는 행사가 열렸을 것이다.

앨버커키에서는 65명 정도의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옥주 이사의 큰절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사회를 맡은 이옥주 이사는 오늘 행사를 운영하고 봉사한 분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하자며 1부 진행을 시작했다.

1부에서는 한인회장의 인사말과 코윈 회장의 인사말, 공연이 있었다.

공연으로는 김레베카 한국학교 교장이 그리는 금강산을 불렀고 예술부장 이희정 씨의 부채춤과 장구춤이 있었다. 이경화 장로의 노들강변과 도라지 하모니카 연주와 수 돌슨

씨와 친구 매리안의 볼룸댄스 또한 흥겨웠다. 1부 공연 후 행운권 추첨이 있었다. 식사 기도는 신경일 목사가 했다.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에서 이 행사를 통해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즐거움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잔치를 준비한 회장 이하 모든 임원을 축복하고 감사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노강국 목사님과 유족을 위해 기도했다. 임원들이 준비한 오곡밥과 갇은 나물을 나눈 후 2부에서는 가요 경연대회를 열고 중간중간 행운권 추첨을 했다. 가요 경연대회 수상자는 1등 김태원 씨와 김경희 씨 듀엣, 2등은 박광종 씨와 어린 딸 주은 양이 공동 수상, 3등은 어버이회 주방 봉사자 열심히 돕고 있는 윤진옥 씨의 부군 윤종석 씨, 4등은 장세현 씨가 수상했다. 경연대회 상품은 쇼건 식당의 기프트 카트가 전달됐고 어버이회 회원들에게는 가정 당 쌀 1포석이 전달됐다. 순서 맨 마지막 행운권 추첨의 대상은 박에스터 선교사가 당첨되어 현금 100불을 수상했다. 행사를 위해 박달규, 최신옥 부부가 쌀 20포대, 코윈에서 쌀 15포대, 아리랑에서 참쌀 5포대, 라면 5박스, 시루떡, 임낸시 부회장 100불, 김영신 회장이 100불 후원했다.

(글:이은주 기자) ■



사회자; 이옥주 이사



김영신 한인회장의 인사말



이희정씨의 부채춤



대보름 잔치 손님

## 사진으로 보는 대보름 잔치



가요경연대회에서 찍은  
사진

## 뉴멕시코 한국학교소식

김레베카

뉴멕시코한국학교 교장



2016년 봄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인 단체에서 여러모양으로 협조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 안내서를 상가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부치게 해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금액을 후원해주신 이옥주 이사님과 미국을 방문하시던중 저희 한국학교를 찾아주시고 금일봉도 전해주시신 조연주 장학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난 학기에 비해 증가하였고 특별히 알바퀴기에 있는 비재외 동포 학생수는 전체학생의 3/4 을 차지하는 놀라운 현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한인2세 자녀들의 숫자는 극히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몇가지로 분석할수 있겠지만, 바라는 우리 한인 2세들이 한글은 물론이고 우리의 문화를 배울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선생님 - 김정현 - 한분을 모셨습니다. 목요일 성인2반을 맡으시며 저희 웹사이트 ([www.kaanm.com](http://www.kaanm.com)) 한국학교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열심을 보여주시며 물심양면으로 저희 한국학교를 위하여 애쓰시는 뉴멕시코 한인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레베카 드림 ■



日本の食品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http://www.alorientalmarket.com)

새 주소로 옮겼습니다 -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입니다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http://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목요일 성인1 반. 정지에 선생님과 함께.



목요일 성인2반



목요일 성인2반 재외동포 김도현 학생과 김정현 선생님



간식시간에 학생과 선생님과의 대화 시간

## KOWIN 뉴멕시코지회장 취임사

박광종



KOWIN 뉴멕시코 지회장  
안녕하세요. 코윈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뉴멕시코지회장이 된 박광종이라고 합니다. 코윈은 한국정부기관인 여성가족부산하에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지역사회의 특징을 살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많지 않은 숫자지만 뉴멕시코지역사회에서 차세대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과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봉사하는 취지로 코윈 뉴멕시코지회가 2013년 11월에 발족되었습니다.

뉴멕시코주립대학에 와서 석박사를 끝내고 이제는 두아이의 엄마의 시각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지역사회에 높이는것이 차세대의 긍정적인 정체성과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기에 코윈 뉴멕시코지회장직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특히 초대회장님이신 정풍자회장님께서 새로 시작한 단체인데도 여러모로 잘 닦아놓으신 뉴멕시코지회를 2대 회장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 부담이 큼니다. 정풍자회장님과 회원님들이 계획해서 이루었던 일들, 타주에서 온 환자들의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는 게스트 셰프 for 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 of the Southwest, 정보세미나, 교육세미나, 건강세미나,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한 김치바자회와 여러가지 자선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뉴멕시코지회 부회장이 되신 박선숙교수님은 뉴멕시코 Highlands University 교육대교수님으로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들을 가르치시기에 차세대교육에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로 차세대 학생들을 위한 Career Workshop과 Mentorship Program 또한 구상중이며 각별한 관심분야입니다.

얼마전 한인회주최로 열린 대보름잔치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正月 大보름) 또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1년 12달 중 첫 보름달이 뜬다는 이 날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설,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지켜왔다고 합니다. 정월은 한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로서 그 해를 설계하는 달이기도 하여서 대보름잔치에 저희 가족이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한 해를 기쁘게 설계한 만큼 올해도 코윈의 회장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뉴멕시코 지역사회에서 남다르게 차세대교육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자질과 능력을 쓰시고 싶은 분들을 코윈의 새로운 회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노강국 목사님 소천

산타페 한인 장로교회에서 시무하셨던 노강국 목사님께서 지난 2월 19일 새벽 60세의 일기로 소천하셨다. 노강국 목사님은 한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11시30분에는 로스앨러모스 White Rock 장로교회, 오후 2시에는 산타페에 있는 Westminster 장로교회를 오가시며 예배를 드려 왔다.

장로회 신학대학원(교역학 석사)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신학 석사)을 졸업하고 예장 통합 영등포 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님은 1989년 도미 후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한인장로교회와 캘리포니아 주 머데스토 한인 장로교회, 영은 한인 장로교회,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의 담임목사를 거쳐 2006년 4월 1일 산타페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셨다.

2월 22일 월요일 저녁 6시에 로스앨러모스 White Rock 장로교회에서 드린 추모예배는 임동섭 목사님의 집례로 산타페 한인 장로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뉴멕시코 지역 사회의 많은 이들이 분당을 채웠다.

앨버커키에서도 교역자들과 장로, 한인회장과 한국학교 교장, 어버이회 회장이 참석했다. 천국 환송예배에서는 노 목사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찬송가 544장을 불렀다. 감리교회 김기천 목사님이 기도를 담당했고 에콰도르 선교사인 임동섭 목사님이 빌립보서 3장 20 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대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다. 윤형진 성도님이 약력을 소개, 구은모 성도님과 박미라 집사님 조사를 했다. 노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셨던 피닉스, 아리조나 장로교회 소속 미국 원주민 선교사인 안병호 목사님은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만나면서 큰 격려가 되고 대화가 통하는 친구였는데 먼저 떠나보내서 아쉽다. 늘 생각하시던 교회, 하시고 싶어 하던 설교 다 못했지만,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하셨다. 장례 위원장인 장종혁 집사의 광고에 이어 White Rock 미국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인 John A. Guthrie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조문객들은 갑자기 슬픔을 당한 정영주 사모님을 위로했다.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서 교인들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었다.

유족으로 두 아들 노준용, 노민용과 정영주 사모님이 계시다. 산타페 장로교회는 후임 목사님이 정해질 때까지 노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셨을 당시 설교를 맡으셨던 임동섭 목사님이 주일설교를 담당할 예정이다.

(글:이은주 기자) ■



추모예배를 마치고 조문을 받는 유가족



교회 사무실에서 집무중이셨던 노강국목사



아드님의 오레곤 대학 졸업식(박사학위)에서 찍은 가족 사진



# 봄 - 꽃

봄은 대지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복돋운다. 연중 3, 4, 5월이 봄인데, 음력으로는 입춘에서 입하 전까지를 봄으로 잡는다. 농부들이 들일을 시작하는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봄눈 녹듯한다는 말은 빨리 슬어 없어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이른봄에는 여기저기 잔설도 많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려고 모진 추위를 이기며 준비한 복수초는 눈을 헤치고 노란 꽃을 피워, 눈 속의 꽃을 찾아간 사람을 반갑고 고마워하게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갖게 한다. 소나무 사이사이 수줍게 피어있는 연분홍 진달래. 사철 시간만 나면 오르던 무등산의 너덜경에서도 피던 노란 생강나무 꽃. 봄은 꽃이다. 꽃을 빼버리면 봄은 봄이 아니다.

해마다 3월이면 섬진강 매화마을을 찾고는 했다. 섬진강 가 구례에서 태어난 친구는 매화가 활짝 피는 때를 놓치는 일이 없었다. 매화가 만개한 산골짜기는 백설이 내린 듯도 하고 하얀 꽃구름이 내려앉은 듯도 하다. 매화는 다른 나무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피고, 매실은 벌레들이 극성을 부리기 전에 여물어 향아리 속으로 들어간다. 간간한 따스한 바람에 날리는 하얀 꽃잎을 받아 술잔에 띄워 놓고, 암향을 즐기는 맛을 어디다 비하랴.

발길은 번번이 구례 산수유마을로 이어진다. 지리산 높은 봉우리에는 눈이 아직 그대로인데, 산동의 마을들은 온통 ‘영원불멸의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꽃말을 가진 노란꽃으로 덮여있다. 때맞춰 찾아가야 볼 수 있는 노란 꽃물결. 상위마을에서, 냉기가 감도는 지리산 자락의 공기를 마시며 대장관을 즐긴다. 저 노란 색은 가을이 되면 루비보다 더 붉은 색의 열매로 변하여, 술이나 차 아니면 한약재로 쓰이겠지. 가던 길을 돌아 한참을 내려오면 울타리진 개나리꽃이 발길을 떼지 못하게 한다.

화개장터에서 쌍계사 입구까지의 십 리 벚꽃 터널은 수많은 청춘남녀들이 손잡고 걷는 길이라 혼례길이라고도 불린다. 담홍색 벚꽃 십리 길에 절 경내의 아름다움 그리고 절에서 시작되는 불일폭포까지의 경사진 등산로가 상춘객들을 끌어, 해마다 3월 말이면 하동 쌍계사 일원이 온통 인파로 북적거린다. 불일폭포는 지리산 10경의 하나다. 한 데 모여있는 벚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나무에 피는 연꽃 목련화는 고귀함의 상징이다. 꽃눈이 붓과 닮아서 목필이라고도 하고, 봉오리가 막 피어날 때 북녘을 향한다고 해서 북향화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꽃. 목련은 정원수로 가장 많이 심는 나무라, 4월 중순에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시가지를 발길 가는 대로 걷다보면 담 위로 우뚝 솟은 나무에 피어있는 하얀 목련꽃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꽃이다.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나무여서, 앨버커키의 내 집 뒷마당에서도 봄이면 청초한 모습으로 내 향수를 달래준다.

늦봄 5월에 피어 봄의 절정을 장식하는 모란꽃은, 신들의 의사였던 파이에온이 올림포스 산에서 아폴로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꽃이라서 영어로는 피어나라고 부른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옛적부터 꽃 중의 왕 [花王] 이었다. 대만의 나라꽃이고, 인도네시아 주의 주화며, 결혼 12주년의 꽃이고, 여자의 예쁜 이름이다. 호화스럽고 넉넉하며 둥글어 우리 나라에서도 부귀를 상징하는 꽃. 왕비나 공주의 옷이며 신부의 예복에 수놓아졌으며, 부귀공명을 염원하는 그림이 되기도 했다. 우리 내외는 매강 선생이 그려준 목단 묵화 석 점과 함께 산다.



높은 산의 철쭉은 봄을 지나 유월에 핀다. 좋은 날씨에 한라산 백록담을 다녀온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던가. 우리가 백록담을 찾아가던 날도 산 중턱까지 구름이 끼어 있었고 바람마저 세차게 불었다. 윗세오름에서, 툼툼이 비기는 햇살에 비친 철쭉꽃의 황홀한 모습에 피곤이 확 가시는 걸 느꼈다. 강한 바람과 추위에 적응하느라 가지가 뻣뻣하고 나무 전체의 형태도 탄탄해서, 아래서 늘 보던 철쭉과는 아주 다르다. 유월이면 지리산 세석평전의 푸른 초원도 철쭉꽃으로 얼룩진다. 자욱하던 안개가 걷힌 뒤에 나타난, 탐스럽게 핀 연분홍 꽃이 산행으로 피곤해진 모든 이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준다.

한여름이면 울타리 옆에 함초롬히 피어있는 접시꽃, 초가지붕 위에 핀 박꽃, 땅 위를 기는 줄기에서 피는 종 모양의 호박꽃을 즐겼다. 그보다 나는 어렸을 적, 자운영꽃을 무척 좋아했다. 비료가 없던 시절에 풋거름으로 쓰려고 눈에 씨를 뿌려 가꾸던 자운영은 봄에 홍자색 꽃마당을 이룬다. 현란한 색깔에 흘러 아무리 멀어도 달려가 보아야 직성이 풀리고는 하던 꽃, 그 꽃이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추어버려 마냥 아쉬워하기도 했다. 7년만의 모국 방문 때 선물로 받은 목련차의 독특한 향을 봄날 아침에 즐기고 있자니 고국의 봄이 아련히 떠오른다. ■



## 오수나 너서리 무료 원예강좌 개강 OSUNA UNIVERSITY FREE CLASSES

Osuna University 는 Osuna Nursery (Garden Center) 에서 제공되는 무료원예(Gardening)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과정은 초급원예부터 고급과정으로 장미부터 이지역 자생식물까지 뉴멕시코 기후에 관련된 원예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참여할수 있고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60분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The purpose of Osuna University classes is to provide a leaning space for the community where beginning or advanced gardeners can come to expand their knowledge base. The classes range from the basics of gardening to specific subjects such as native plants or roses and are all relevant to our New Mexican climate. Classes are held weekly from March through June on Saturdays from 10am-11am and are FREE to the public.

### March

- 5th - Home Composting Basics with Bernalillo Master Composters.
- 12th- Greg with Soil Mender – Vegetable Gardening with Organics
- 19th - John with Monrovia – Monrovia Plants – Woody Ornamentals and Flowering Shrubs
- 26th- Janine with Home Grown NM (Spring Open House)

### April

- 2nd- Water conservation with Richard Chapman
- 9th- Making Seed Bombs with Leau Phillips
- 16th - Andrew With Trees of Corrales - Choosing the Perfect Tree
- 23rd- (Rose Open House) The Rose Society will teach class 10-11 & then be on site from 11am-1pm
- 30th - Rudy & Jimmy with SureGreen – Lawn Care / Growing & maintaining flower and shrub beds

### May

- 7th- Baker Marrow – Best Plants for New Mexico Gardens & Landscapes

- 14th- Judith Philips - Waterwise Gardening
- 21st- Cooking with Herbs -Edible Magazine
- 28th- Peter with the Master Gardeners – For the love of Tomatoes!

### June

- 4th- Growing in Arid Climates With Sean From The Rio Grade Community Farm. Mulching, watering, irrigation, and what to look for in the height of the season for successful growing. (Vendor Day)
- 11th- Bees and other beneficial insects in New Mexico with Graeme Davis From NMSU
- 18th- Native Plants with John R. Garlisch From NMSU
- 25th- Introduction to Bonsai Care with John from the Albuquerque Bonsai Club

Osuna Nursery | 501 Osuna Rd NE | 505-345-6644  
(자료제공: 서혁상 /General Manager/Osuna Nursery)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편집부)

## 1-16 강연오의 NIW 영주권 취득 (EB2, 취업이민 2순위)



연오가 회고한다. “내가 결국 영주권을 받은 것은 공부를 통해서였다.” 견우가 묻는다. “어디서 일하는 걸로 취업이민을 받은 건데?” 연우가 답한다. “글쎄 고용주 없이도 가능한 길이 있더라구.” 연오는 무사히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무려 7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다. 아무리 알아봐도 학교에 교수자리는 쉽지않았고, 열심히 공부한 분야에 일자리를 줄 회사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고학력자는 고용주 없이도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나 외국박사출신중에 그렇게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또는 약자로 NIW 라는 방법의 영주권취득 방법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취업이민 2 순위의 일종이니 석사학위자 이상이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박사학위자 이상이 미국에 연구를 통해 기여할 것이 있음을 강조하여 받는것이다. 비록 당장의 일자리는 없더라도 미국에서 좋은 연구환경을 주기 위해 영주권을 빨리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 (national interest) 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여 일정한 요건을 면제 (waiver) 받는 것이다.

NIW 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구 실력으로 인해 학계에 그 실적이 알려져서 학계에서 본인과 무관한 저명인으로 부터도 추천서들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학계의 저명한 분들에게 추천서를 받았고, 그제 통해서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영주권을 받았지 뭐니, 그동안 공부하느라 미국사느라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 연우의 눈이 촉촉해진다.

### 전문가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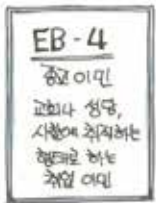
#### 학력과 경력공식: 취업이민2순위

“아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끝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정말 후회됩니다. “ “저는 석사학위가 있는데도 제 담당변호사는 2 순위를 전환하지 말고 3순위문호 열리기를 그냥 기다리라네요.” “대학 졸업한 뒤 직장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다 합하면 5년이 넘습니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이런식의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유는, 3순위 취업이민이 최근들어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기기간이 있는데 비해 2순위 취업이민은 문호를 계속 제한 없이 열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일반적인 취업이민 3순위 사이에는 약 1년여 기간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의 길이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대로 석사학위자 이상의 영주권입니다. 이 경우 노동승인 (Labor Certification, L/C) 을 받은 후에 이민신청서류 (I-140) 와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청서류를 통해 크게 두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는 해당포지션이 석사학위자 이상 (Advanced Degree) 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와, 둘째는 해당 외국인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입니다. 그러니 신청자는 석사학위가 있더라도 고용주회사의 정황상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위를 만들기 어렵다면 2순위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민법 규정은 석사학위 외에 그에 준하는 (Equivalent) 경우로 학사 학위 취득후 점진적으로 (Progressive) 얻어진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역시 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종사자 및 신청자들이 흔히 말하는 학사 플러스 5년경력은 석사와 같다 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공식이 꽤 유명해져서 그냥 학사학위만 있고 관련없는 직장경력 5년만 있으면 2 순위도 가능하다는 논리비약을 낳곤 합니다. 그러나 그 직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로로는 부족하고 졸업이후 학위와 연속성 있는 경력을 통해 얻어진 심화된 능력이 필요함을 정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결국 대학학위에서부터 경력을 통해 현재 직책의 수행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기술의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과학기술분야 등 이공계 분야가 전형적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민국은 산하기관의 심사관들에게 내리는 지침서에서 이 Progressive Experience 를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

case-by-case 라고 밝히고는 L/C 상의 자격요건을 잘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종종 포지션 앞에 Senior 를 넣어서 업무가 어렵거나 경력이 추가되어야 함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계에 있는 케이스라면 이민변호사의 실력도 작용할 것이고, 운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민심사관들은 3순위의 적체로 인해 2순위로 짜맞춘 듯한 전환케이스를 L/C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심사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L/C가 감사에 걸리면 1년도 넘게 걸리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민시장에 통용되는 학력과 경력에 대한 공식 중에 경력 3년은 학사학위 1년과 같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계산에 의해 취업비자를 신청할때 1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평가를 통해 4년제 대학학위를 필요로 하는 H-1B 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학위는 경력과 관계없이 반드시 학위로만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1-17 교회전도사의 비자영주권 (종교비자와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얼마전에 영주권이 나왔다고 하더라.” 권우는 최근 교회에 알려진 소식 하나를 전한다. “내가 다녔던 삼페인어나나 한인교회에도 신학과정을 밟으면서 교회에서 사역한 전도사님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연오 역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한다. 이처럼 미국 한인 사회는 한국보다 더 높은 종교인구 비율을 보이며, 미국으로 유학나온 기독교계통 성직자들이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높은 편이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에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넌 기독교인들에 의해 건국된 나라이다. 첫이민자가 종교이민인 셈이다. 그런 연고로 미국은 전통적으로 종교인에게 관대한 이민정책을 지켜왔다. 실제로 다른 취업이민에 비해 노동승인을 밟을 필요가 없이, 동일 교단에서 2년이상 근무한 성직자 및 비성직자는 큰 기다림 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불교나 원불교 등에도 같이 적용되며, 해당 종교기관의 멤버로서 2년이상인 자로서 성직자 포지션은 우선 최장 5년의 종교비자(R)를 받을수 있다. 그렇게 2년 이상을 일하면 위에서 말한대로 이민청원서를 넣어 종교이민으로 연결된다. 대략 3년이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들어 교회등에서 이제도를 남용하여 일반인에게도

종교비자를 내주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민국은 종교비자를 포함한 모든 종교기관의 청원서류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꼼꼼한 심사후에 승인을 해주고 있다. 예전에는 3개월 정도면 가능하던 비자신청이 최소한 6개월로, 1년정도면 종결되었던 종교이민도 수년씩 기다리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 전문가의 한마디

#### 종교이민절차의 대안

한국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종교기관을 찾는 경우는 신앙적 이유만이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종교기관이 이민자의 해외정착을 돕고 또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다 그 역할과 수요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신학공부를 위한 해외유학이 아무래도 미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를 일할수 있는 비자로 바꾸는 절차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전통적인 선택은 종교비자 (R-1)를 신청하여 2년 이상 일하다가 종교이민 (EB4) 를 신청하여 1년여 후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취득방법은 일반적인 취업이민절차에서 사전에 밟아야 하는 노동승인 (Labor Certificate, L/C) 절차가 필요없기에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종교비자 이민서류의 약 3분의 1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결과 최근 교회 및 사찰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장방문실사가 이루어 지고 심사기간도 예측하기 어렵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가정에 어느세 장성한 자녀가 있는 경우 대학입학시 장학금이나 학자금 용자문제 등 걱정이 적지않습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종교이민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를 따르는 방법이 세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일반 취업이민에서 신청자가 스폰서업체에 취직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나 성당, 사찰에 취직하는 형태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취업이민중에서도 학사학위자 또는 숙련공을 위한 3순위 절차는 대기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기다리는 측면에서는 대안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종교비자 신청자는 신학석사 학위이상을 소지한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이민2순위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러면 추가로 L/C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종교 이민 신청과 처리 기간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반 취업이민의 경우 종교이민과 달리 종교비자 소지자로서 2년이상 일한 기록이 없어도 바로 영주권수속을 시작할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빨라 집니다. 이민 청원서는 동시에 두개 이상 존재할수 있기 때문에 종교이민 (EB4) 청원서 (I-360) 가 접수되어 있는 동안에도 문제없이 일반취업이민 (EB2) 절차를 중복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취업비자 (H-1B)가 분호가 다 차지않아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는 상황이라면 종교비자 (R-1)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취업비자를 받는 것도 가능한 대안입니다. 성직자 (clergy)는 H-1B 취업비자가 상정하는 대표적인 전문직이기 때문에 즉 종교기관의 현장방문이 부담되거나 종교비자가 요구하는 요건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지자를 오히려 더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통적인 종교비자이민을 선택한 경우라면 이민국의 실사 (site visit)가 언제 나올지 모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개 신청자가 제출한 스케줄대로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종교기관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민국의 종교이민 거부이유는 대개 신청인의 종교기관 2년 경력요건이 미달되거나, 종교관련직업으로서의 증명부족, 또는 스폰서인 종교기관이 자격미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변동사항으로는 종교비자(R-1)처리에 중단되었던 급행처리절차가 다시 살아난 점입니다. 다만 이경우에 해당하려면 최근 2년간 해당종교기관이 비자 절차를 밟아 이민국이 현장실사를 나와 성공적으로 승인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록이 있다면 15일이면 종교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한 종교이민 I-360 청원 절차에 대해서는 급행절차가 없어 기존처럼 수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 1-18 윤춘향 가정의 경우 (서류미비자)



시카고한인교회에는 알게 모르게 비자가 만료된채 영주권없이 조용히 사는 가정이 많았다. 미국에서 각자의 비자신분은 아주 가깝지 않으면 서로간에 물어보지 않는게 에티켓으로 여겨진다. 때로 상대가 불법체류인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불미스런 일이 있을때 이민국에 알린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통계를 정확히 내기는 어렵겠지만 추산하기로는 미국의 3억 인구 중에서 약 4%인 1천 2백만명은 불법체류자이자, 보통 용어를 정치적으로 순화하기 위해 “서류미비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대개 이민국에서 추정하는 한국계 불법체류자의 규모는 약 20만명 정도로 발표되고 있다. 대체로 한인인구의 10%에서 15% 정도는 어떠한 이유로든 서류미비자로 생각된다.

“윤춘향 집사도 그러니까 불법체류라면서?” 연오가 오랫동안 시카고한인교회를 다닌 견우에게 물었다. “그집도 참 안타깝지, 참 좋은 사람들인데 신분유지에 실패를 해서 고생고생하면서 두 애들 낳우고 흥부 키우느라 힘이 들지 않았겠어?” 미국이민국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또 동시에 3D 업종의 일들은 주로 남미계 불체자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기에 마냥 추방을 시킬수고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체로 불법체류의 경우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대형 회사나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다행히 미국교육 시스템은 신분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아 아이들은 공립학교 교육과 대학교육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이 20대 중반에 취업을 할때 신분 미비는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 전문가의 한마디

#### 불법체류의 의미

소액투자비자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비즈니스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면서 연장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소위 서류미비자신분이 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발생이후에는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일,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변경과 연장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합법적인 신분 (lawful status)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체류라고 말하는 상황을 이민법적으로 보자면 세밀하게는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의 두가지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두 개념중에서 “Out of status”가 좀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출입국 카드I-94 만료 후의 체류뿐 아니라, 예컨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있는 동안 공립학교를 다니거나, 학생신분자가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지 않는등, 소액투자자의 배우자가 이민국의 노동허가 없이 노동을 하는등 일체의 이민법상의 체류신분 규정을 어긴 경우를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이러한 “Out of status” 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대체로 출입카드I-94에 적혀있는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 (overstay)만을 의미합니다.

이 두개념이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상황은 3년/10년 재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즉 불법체류기간의 장단에 따라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일정기간동안 금지되는데, 불체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금지, 1년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법체류한 “Out of status”가 아니라 “Unlawful presence”만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씨가 E-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달리 살아오던 사람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결혼하려느냐고 물어보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둘이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 이유는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이지요. 결혼한다는 것은 둘이 함께 사는 것이지요. 함께 살면서 서로의 존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인생에 균형을 주어 서로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서로 사랑한다면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함께 산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선 표현이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소외감입니다. 심지어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도 외로움, 쓸쓸함, 소외감, 허탈감 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지요. 근대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도 허무, 소외감 등입니다. 서로 부딪힐 정도로 뻘뻘이 모여 살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함께 있다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의미에서 함께 있는 것이지요. 신체적으로 함께 붙어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공허함 즉 허무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허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천지 창조를 통해 세상을 충만함으로 채웠습니다. 이후 세상에는 충만과 풍성으로 채워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세상에는 사람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텅 빈 공허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김기천 목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될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이 됩니다. 마태복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28:20)”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께서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리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허탈감, 공허함, 소외감 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첫날부터 끝날까지 사람들과 함께 하였고, 하시고 있고, 하실 것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은 과거 성경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일 신앙생활에서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좀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오헤오공항에서 출입국카드에 유효기간 2년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입국후 계속된 경기하락으로 운영중이던 식당을 1년만에 닫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아무개씨의 신분상태는 “Out of status” 개념으로는 불법체류인 것이고, 출입국카드 I-94의 유효기간으로 계산되는 3년/10년 재입국금지 적용받는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는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Out of status) 미국에서 신분연장 또는 변경 그리고 영주권신청등은 할수가 없지만,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No unlawful presence) 이론상으로는 한국으로 출입국 카드의 기간만료 후 6개월안에 귀국하여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받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I-94 카드에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않고 D/S (Duration of Status)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체류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 불체의 시점을 결정할 때 차이가 생깁니다.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신분이 더이상 없다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Unlawful presence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비자신분자는 그래서 신분을 유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국 후 생각외로 쉽게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3년/10년 재입국금지조항은 18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왔다가 신분이 소멸된 경우에는 출국후 학생비자등으로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



# 앙리 마티스의 두번째 이야기



심유진 성도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 앙리 마티스 의 일화

피카소마저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색채를 그렸던 화가”로 부러워 했던 앙리 마티스는 1990년대 전만 해도 미국땅에서 자신의 그림이 공개화형에 처해질 만큼 치욕을 당한 작가였다. “야수파”라는 이름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포악한 그의 그림은 당시 고운 그림에만 익숙했던 애호가들의 성미를 건드렸다. 마티스의 아틀리에를 방문한 한 부인이 오른팔을 유난히 길게 그린 여인상을 보고 잔뜩 찌푸리며 한마디 내뱉었다.

“내가 남자라면 당신 작품 속의여자와는 차 한잔도 안 나눌거예요. 이게 웬 괴물이람...”

마티스의 대답인즉 “부인 뭔가 잘못 보셨군요 이것은 여자가 아미라 그림이랍니다.” 였다. 마티스는 ‘그림 속의 여자’와 ‘여자를 그린 그림’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알게했다. 그는 이런 말도 남겼다.

“내가 초록색을 칠한다고 해서 풀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파란색을 칠한다고 해서 하늘을 그리는 것은 아니다.”

앙리 마티스 / Henri Matisse(1869~1954)

기억은 실물을 덮어버린다. 풀은 초록색이라는 기억, 사람의 팔은 양쪽이 같다는 지식, 눈은 둘이요, 코는 하나라는 정보 등은 그림의 진실을 수용하지 못하게 한다. 대상의 고유한 진실을 파악하는 어린아이의 눈이 그림을 그림으로 보게한다. 그림을 보되 겉모양만 보는 사람은 달을 가리켰으되 달을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한다. 마티스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장의 연습그림을 그리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는 과정을 거쳤다. 그 이유는 그림을 보는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로운 시선과 순수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야수파는 이처럼 초원위를 뛰어다니는 진짜 야수처럼 역동적이고 거침없는 그림에 붙여진 이름이다. 얼핏보면 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별 것 아닌 그림처럼 보이지만 볼수록 대단한 색채구성 임을 보여준다. 말 그대로 색채의 향연이다 앙리 마티스 그는 색채를 마음대로 갖고



는 위대한 화가라 말할 수 있다.

## 작품소개

### 1. 보라색 코트를 입은 여인

당시의 전통적인 회화에서 흔히 쓰이지 않던 원색을 사용하여 그 어떤 화가의 작품들보다도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다. 중앙의 보라색 줄무늬 코트를 입은 세련되어 보이는 여인과 왼쪽의 탁자위에 놓인 화병과 노란색의 꽃이 유난히 돋보인다.

원색을 대담하게 병렬배치하거나 보색관계를 교묘히 활용해 눈에 확들어오는 방식은 마티스만의 독창적인 화풍이라고 할수 있다.

화려한 색감임에도 단순하게 표현된 여인과 배경들때문에 입체감은 사라지고 평면적인 느낌이 강하게 풍기며 그림 전체에 경쾌한 느낌을 준다. 또한 전통적인 회화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원색을 대담하게 병렬 배치하거나, 보색관계를 교묘히 활용해 그림에 강렬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 2. 푸른 누드 II

1950년 베니스 비엔날레 회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앙리 마티스는 명실상부 현대 미술의 거물로 마지막 예우를 받고 있었다. 이 무렵 그는 회화를 접고 종이 오리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가

종이 오리기 작업을 시도한 것은 이미 1930년대부터이기는 하나 노년에 이런 저런 병치레로 운신이 어려워지자 그는 작정하고 종이 오리기에만 전적으로 몰두한다. 기간으로 따지면 그의 말년 5년 동안이다. <푸른 누드 II>는 바로 이 기간에 그가 남긴 총 4편의 동명 연작 중 하나다. 제작 방식은 오린 종이 위에 과수를 채색해서 미리 준비된 흰색 종이 위에 콜라주를 하듯 붙이는 것이다. 작품 속의 인체 형상은 극도로 단순해지고, 채색도 오로지 파란색으로 제한되어 간결미를 높였다. 인물의 사지는 종이 접듯 포개져서 ‘장식적 육체’로 최소화했다. 이 누드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타원형 머리 아래로 돌출된 두 개의 작은 가슴을 통해

푸른 누드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푸른 누드’는 마티스가 1907년에 유화로 제작한 야수주의 전성기의 대표작 제목과 같다. 그 원작 유화에서 여성은 〈푸른 누드 II〉에서처럼 한 손을 구부려 머리에 올리고 두 다리도 구부린 채로 재현되었다. 따라서 말년에 제작된 ‘푸른 누드’ 연작은 그가 전성기에 누린 야수주의를 간결한 장식주의로 축약해 놓은 듯도 하다. 어느 미술사가는 ‘푸른 누드’ 연작이 “뭔가 만질 수 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조각 같아서, 조각처럼 입체적이지만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정확성도 띠고 있다.”고 평했다.

### 3. 춤

마티스의 또 다른 작품 《음악》(1910)과 함께 마티스 작품세계의 정점을 이루는 작품이다. 1910년 제작되었으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을 제작할 무렵 마티스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데 마티스는 프랑스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가 있어서 그의 단골 화상은 미국인과 러시아인이었다. 이 작품은 《음악》과 더불어 러시아 화상 슈추킨(Shchukin)의 저택을 장식할 목적으로 주문받아 제작되었다.

마티스는 이 작품에 착수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원무》라는 작품에는 3가지 색이면 충분하다. 하늘을 칠할 파란색, 인물을 칠한 분홍색, 그리고 동산을 칠한 초록색이면 족하다. 사상과 섬세한 감수성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우리는 고요를 추구할 수 있다. 내가 추구하는 유일한 이상은 ‘조화’이다.” 원근법이 사라진 평면화된 화면에 펼쳐진 《원무》는 율동감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동작이 다양한 다섯 명의 인물이 하나로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잃지 않으며, 인물들의 위치를 악보의 음표처럼 조금씩 달리 하여 변화를 주었다. 춤과 음악이라는 본능적이고 순수한 행위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작품이다.

### 4. 달팽이

마티스 말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작업은 색종이 콜라주이다. 죽



기 10년 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이젤에 종이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려워지자 마티스는 붓 대

〈춤〉

〈달팽이〉



신에 가위를, 물감 대신에 구아슈를 칠한 색종이를 사용해 콜라주의 회화 요소로서 평면적 성격을 부활시켰다.

마티스는 ‘가위는 연필보다 한층 감각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색종이 그림 작업을 계속하여 《달팽이》와 같은 대

작을 제작하였는데, 당초 이 작품에는 ‘현실에 뿌리박은 추상적 패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초록·빨강·노랑·파랑·분홍·검정 등의 색을 사용하여 달팽이의 형태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색종이의 배열이 휘도는 모양으로 움직여 나가게 하여 달팽이의 껍질을 연상하게 하고, 그 운동은 연속적이 아니라 쉬었다가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쉬는 영원한 반복을 상징하는 듯하다.

### 5. 삶의 기쁨

앙리 마티스는 “내가 꿈꾸는 미술이란 정신 노동자들이 아무런 걱정·근심 없이 편안하게 머리를 누일 수 있는 안락의자 같은 작품”이라고 했다. 그는 폭발적인 색채를 거침없이 휘둘러 마치 포악한 짐승 같다는 의미로 ‘야수파’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지만, 야수파적 흥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마티스가 붓이 한결 부드러워질 무렵인 1906년 완성한 ‘삶의 기쁨(Le Bonheur de Vivre·사진)’은 ‘정신을 위한 안락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화사하면서도 평온하다.

마티스는 밝은 빨강과 눈부신 노랑, 깊은 초록 등 풍요로운 색채로 그림을 가득 메웠다. 수채화처럼 물기 많은 붓을 천천히 움직여서 그린 듯이 긴 곡선은 화면 전체에 부드러운 리듬감을 만들어내며 나무가 되고, 수풀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서도 거리낌 없는 사람들에게선 문명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풍성한 자연 속에 온몸을 맡긴 채 사랑을 나누고, 꽃과 대화하며, 동물에게 피리를 연주해주고, 여럿이 모여 둥글게 손을 잡고 춤추는 이들의 모습에서 지상 낙원에 살았던 태초의 인류를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1920년경 미국인 컬렉터 앨버트 반즈가 구입한 이래 반즈 재단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반즈 재단의 소장품 공개 방침은 대단히 엄격해서, 작품의 상설 전시는 물론 컬러 인쇄마저 오랫동안 금지돼 있었다. ‘삶의 기쁨’ 역시 1993년에야 처음으로 컬러로 된 책에 등장했다.

필자는 앙리 마티스의 작품을 통해 종종 영감을 얻곤 했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앙리 마티스에 대한 이야기와 작품소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화가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세계기도일 예배를 여선교회 주최로 드림

세계기도일 예배는 전 세계 180여개 나라의 교회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금요일에 함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초 교파적 연합예배이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예배함으로 지구자전과 함께 24시간 여성들의 기도가 이어지는 예배이다. 128년의 역사와 함께 인종, 문화, 성별, 빈부, 인간과 자연의 불화와 분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평화실현을 결단하는 예배이다.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에서는 2016년 3월 4일 저녁 7시 세계기도일예배를 주최하였다. 여선교회 회장인 박선희 집사 사회로 시작했다. 금년은 특별히 쿠바를 위한 예배이어서 성은미 자매가 쿠바의 어제와 오늘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고 이어서 박광중 자매의 세계기도일 안내와 박영신 자매의 반주로 특송이 있었으며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애수끼로 가면'을 부르고 김숙경 사모의 대표기도에 이어 사회자와 함께 기원을 드렸다.

'오십년 이상 쿠바국민을 괴롭히고 결국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태롭게 만든 불의한 경제 봉쇄를 강력히 비판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성들과 어린이들 노인들을 괴롭히는 폭력을 인식못한 우리를 용서하여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 설교말씀은 김기천 목사님께서 '어린이를 영접하는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마가복음 10:13-16)라는 주제로 설교하셨고 마지막 합심 기도에서는

1. 쿠바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있게 전파되기를
2.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성들과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3. 한국과 미국의 각 지역 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하여
  4. 이민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 이상의 네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드렸다.

예배를 주최한 여선교회 회원들은 모두 이번의 첫 세계기도일 예배가 참으로 은혜롭게 진행되고 감명 깊었다 라고 하면서 처음있는 행사라서인지 16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수 있도록 준비 하자고 했다. 여선교회 회장인 박선희 집사는 '내년에는 우리 교회 단독으로 이행사를 주최할것이 아니라 알버커키 여러 한인교회가 연합으로 이 세계 기도회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포부를 말했다. ■

## <뉴멕시코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광야의 소리 편집부에서는 뉴멕시코 한인 지역사회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전할 수 있고 독자들의 의견도 상호교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해 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기로 하고 페이스북에 <뉴멕시코 광야의 소리>페이지를 지난 1월에 개설했다. <광야의 소리>지는 두 달에 한번 발행되는 격월지인 까닭에 시간적으로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로는 제한성이 있는 반면 페이스북은 시간적 지연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시험적으로 페이스북에 <뉴멕시코 광야의 소리> 페이지를 개설하게 되었다.

광야의 소리 웹사이트도 있지만 웹사이트는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오는 독자들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독자가 검색을 통해서 찾던지 주소를 알고 입력해야



웹사이트가 열려서 보게 된다. 반면 페이스북은 독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사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면 페이스북은 스스로 친구로 연결된 독자들을 찾아가서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음을 즉시 알려주는 능동적 매체이다.

한인회 행사와 교회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는 한인사회에서 예기치 않았던 경조사가 생겼을 때에도 페이스북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알려주는 매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지난 두 달 동안 시험적 사용을 통해 얻게 되었다. 지난 2월 산타페 교회의 노강국 목사님의 갑작스런 소천 소식을 전할 때였다. 페이스북을 개설한지 한 달 정도 된 때였다.

부고 메시지를 올리자 이틀 사이에 메시지 도달 통계가 153명에 이르렀다. 고인을 생각하며 슬픔을 나누는 댓글들이 올라왔고 개인이 가지고 있던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분도 많이 있었다. 이번 호 기사에 실리는 노 목사님과 관련 사진 모두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알게 된 친구 또는 교우 여러분들로부터 전해 받은 사진들이다. 페이스북은 갑작스런 소식을 전하는 일에 큰 몫을 했을 뿐 아니라 노 목사님을 보내며 애도하는 여러 친구와 교인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주는 역할도 잘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호의 광야의 소리도 페이스북에 올린다.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보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또 사진도 크게 확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인쇄된 하드카피에서 보는 것보다 색다른 느낌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께서 페이스북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주 페이스북을 방문해주시고 가입자일 경우에는 댓글도 달아주시고 글쓴이를 격려도 해주셔서 <뉴멕시코 광야의 소리>가 건실한 정보매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하고 싶다. 뉴멕시코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다. [www.facebook.com/voiceofnm](http://www.facebook.com/voiceofnm)

## 최근 주택 시장 동향

아래에 제시한 표는 알버커키 주택 시장 평균 가격 (Housing price)을 월 별로 2014년에서 부터 현재 2016 1월까지의 보여주는 것이다. 부동산 마켓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buyer's market인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모기지(Mortgage) 이자는 여전히 년 4%이하로 좋은 이자율이다. 하지만 주택을 파는 분들의 입장으로는 안타깝게도 주택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사를 꼭 가야 한다던지 모기지 페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분들에게는 렌트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이곳 알버커키 렌트 마켓은 아주 호경기로 볼 수 있으며 단시간에 렌트를 줄 수가 있다. 모기지 지불이 너무 힘들어 주택을 은행으로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주택을 사고 싶어도 여러가지 문제로 고민중에 있을 때는 중개인과 상의 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자료제공:김영신) ■

Average Sale Price

Year	2014	2015	2016
January	\$203,687	\$203,468	\$217,247
February	\$198,483	\$199,196	
March	\$202,672	\$210,069	
April	\$215,560	\$210,321	
May	\$223,193	\$218,228	
June	\$213,504	\$226,337	
July	\$230,750	\$212,345	
August	\$216,148	\$226,254	
September	\$208,936	\$224,353	
October	\$212,905	\$216,252	
November	\$215,899	\$213,686	
December	\$211,523	\$208,229	

## 새해를 위한 기도문



최영심 권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감사하신 하나님,  
벌써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우리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의지가 되었던 주님의 능력, 실패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던 삶의 지혜, 곤고한 가운데서도 도움이 되었던 이웃의 사랑 등을 생각해볼 때 어려운 역경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시며 항상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주옵소서. 금년에 더욱 원하옵기는 우리의 옛사람과 그 모든 잘못된 행위를 벗어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온전한 띠를 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에벤에셀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삶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mailto:yongfre@yahoo.com)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888-1700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H Affiliates, LLC. Equal Housing Opportunity.





#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아래의 설교문은 지난 1월17일 주일에배때 설교해 주신 김정근 감리사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더니 모두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 조지 와싱턴은 건국의 아버지, 4대 제임스 메디슨은 헌법의 아버지, 16대 아브라함 링컨은 정직한 Abe라는 좋은 별명과 표현하기도 민망한 원조 고릴라라는 악의적 별명도 있었습니다.

한글 사전에서 별명은 그 사람의 생김새, 습관, 행동의 특징을 빗대서 남들이 지어부르는 이름이라고 설명합니다. 별명은 그의 삶과 인품의 특성, 어떤 시대적인 정황에서의 처신과 행동의 특출한 점을 지적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어주는 이름으로 비웃거나 놀리는 뜻도 있지만 사랑스런 애칭도 있고 존경과 흠모의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중요한 사람일수록 별명의 가지수도 많은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인들도 여러가지 다른 호칭(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백성, 택함받은 사람, 성도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를 말할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을 한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안에 산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시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뜻과 같은 말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밖에 살고 있는가 하는것은 그의 실제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는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은혜 안에 살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몇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한다.  
내가 강하게 된다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마음 먹고 힘 쓰고 노력해서 이루어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6:10에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했습니다. 주님안에서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 주실 때 나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강하게 하신다.  
내가 강하게 된다는 것은 육체가 강건하고 체력이 튼실해서

**김정근** 감리사  
중남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기운이 펄펄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면 육체적으로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질과 심장 병으로 평생 고통을 겪었다고 성경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35에서 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라고 담대하게 웅칩니다. 고린도 후서 6:9-10 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 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자 중의 강자였습니다.

디모데 역시 육체적으로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5:23 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제 바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위장병으로 몸이 몹시 약했습니다. 요즘은 좋은 약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비위가 상한다든지 위장을 달래는 약으로는 고작 포도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포도주를 그냥 술이 아니라 “약으로 조금씩 쓰라”고 한 것입니다. 이 귀절은 애주가들이 아주 반가워하는 귀절입니다. 그들은 이 귀절을 인용하여 성경에 술을 마시라고 했다고 과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귀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한 약으로 조금씩 쓰라고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날에도 액체로 된 약에는 대부분 알코올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이나 차나 술 같은 것은 마신다고 하지만 약은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은 쓰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때에만 쓰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병약했으면 바울이 포도주를 쓰라고 권했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나 디모데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1:7-8을 보면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 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 원인은 그의 통솔 능력이나 백성들로 부터의 인기나 신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10-12을 보면 갈렙의 용맹스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40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에 동행하였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 지파 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었을 때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이 85세 노인의 기백을 들어 보십시오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흑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요청합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그 산지는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도망친 가나안 원주민 아낙 자손이 주축이 된 산적의 소굴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땅입니다. 사실 갈렙은 젊은 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에도 동행하였고 후에는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정복의 큰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요청할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나이가 85세나 되었기에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해서 산지를 점령하기에는 때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은혜 안에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육체도 강하게, 정신도 강하게, 마음도 담대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II. 은혜 안에 살면 충성 (진실 - Faithful) 된 사람이 됩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결과가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충성입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진실)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님의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충성의 원리가 요청됩니다.

첫째: 언제나 (항상) 충성해야 합니다.

년 초에는 충성으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충성이 시들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충성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을 때의 감격과 처음으로 직분을 받고 충성을 다짐하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욱 힘써노력하겠습니다”. 이 두 마디가 충성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불충하는 사람에게는 구실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때문에”, “무슨 사정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구실, 변명과 핑계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구실과 변명은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잘 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던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작은 일 마저도 불충했구나”라는 책망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나 충성해야 합니다.

위중한 병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있던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가족들을 다 병실로 모으고 목사님을 청하여 예배를 드린 다음 양쪽 팔에 꼽고 있던 여러가지 주사 바늘을 모두 뽑게하고 퇴원 수속을 하라고 자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가 되었음을 계시로 받았다고 하시면서 가족들의 간곡한 만류를 물리치고 퇴원을 강행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교회의 장로로 세움 받은 지 30여년이 지났건만 주님께 충성을 다 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가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가야겠다. 장로가 할 일은 1. 교회 위해 기도 하는 일, 2. 전도 하는 일, 3. 교인을 살피고 섬기는 일, 4. 그리고 물질로 봉사하는 일인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구나, 주님 앞으로 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육신은 병약하니 전도도 할 수 없고 교인을 보살피는 일도 할 수가 없지만 아직 두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남았으니 그것이라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야겠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과 물질로 봉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유연처럼 말씀을 남기시고 즉시 자기 소유의 재산 1/3을 교회에 바치고 세상 떠나는 날까지 기도하시다가 주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비록 병석에서라도 끝까지 충성한 본 받아야 할 성도의 한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 곳에서 이사를 와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전에 나가던 교회에서는 충성 했다고 하는데 새로 등록한 교회에서는 충성 하지 않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충성했는데 미국에 와서는 충성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어디서나 충성해야 합니다.

셋째: 어떤 일이나 충성해야 합니다.

일이 적은 때는 충성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게을러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한 큰 일만 넘겨다 보고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5달란트 이던 2달란트 이던 혹 1 달란트밖에 아니던 받은 대로 충성하는 것이 올바른 충성입니다. 동부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햄버거 가게를 하던 교인이 있었습니다. 늘 가게를



깨끗하게 하고 정성껏 햄버거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가게에 단골로 오던 어느 중년 남자가 햄버거를 주문하여 먹고 난 후에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요청해 왔습니다. “내가 시내 중심가에 큰 빌딩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 건물안에 햄버거 가게를 하나 해 보지 않겠느냐? 당신이 그 가게를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럴만한 자본이 없다”고 했더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 내가 당신의 가게를 3년이나 단골로 다니면서 당신의 성실한 삶을 지켜 보아왔다. 아무 조건 없이 가게를 열도록 밀어 주겠다”. 그래서 그 빌딩안에 가게를 내게 되었습니다. 몇해 후에 또 다른 빌딩을 짓는데 거기에도 햄버거 가게를 맡아 달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조건 없는 지원을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업에는 목숨바쳐 충성하는데 주님의 일에는 눈썹 만치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속에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맡은일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나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충성의 도수는 얼마나 됩니까? A급? B급? C급? 아니면 F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강하고 담대한 사람, 신실하고 충성된 참으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505)412-5420  
hanaro21@hotmail.com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ean.org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English Worship § 9:30 am- 10: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신동완 파우스티노 사목회장  
장재준 안드레아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알버커키</b> <b>Albuquerque</b>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4312 Coors SW (505) 877-2777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b>한국식품점</b> <b>Korean Grocery</b>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Kelly Liquors #12 6631 Paradise Blvd. NW (505) 897-0088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b>주택융자 Loan Officer</b>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b>건축/페인트 Painting</b>	<b>부동산 Realtors</b>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b>한인 식당</b> <b>Korean Restaurant</b>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b>이발소 미장원 Hair Cut</b>	<b>치과 Dental Clinic</b>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공인회계사 CPA</b>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세탁소 Dry Cleaners</b>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b>리커스토어 Liquors</b>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b>태권도 TaeKwonDo</b>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Kelly Liquors #1 9411 Coors NE (505) 897-967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b>한의원 Acupuncture</b>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b>월셋집 House for Rent</b>	<b>종교 Church</b>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b>의류 Clothes</b>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b>화랑 Gallery</b>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Kelly Liquors #10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505-764-1900)

##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 사진관 Photo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트505-286-3535  
www.dahnyoga.com

## 라스베가스 Las Vegas

##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츨렬: Los Alamos  
(505-662-9681)

##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 리오란초 Rio Rancho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

##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Bernalillo/Belen/ Bosque Farms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 산타페 Santa Fe

##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  
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412-5420  
www.santafekorean.org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2244

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s #3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206

## 클로비스 Clovis

##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 백화점 Mart

T-Mart  
320 B West 21st St.  
Clovis, NM 88101

##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1508 Thornto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 화밍톤 Farmington

##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  
453-5461)

##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 편집후기

봄철이 다가왔습니다. 봄-꽃이란 제목으로 이정길  
교수님께서 써주신 글을 3/4월호의 커버 스토리로  
삼고 표지를 플럼 꽃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오수나 가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강좌 소개도  
뒷 마당 꽃 밭이나 정원 관리에 관심있으신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뉴멕시코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독자 여러분께 더 가까이 찾아갈수있게된  
것도 기쁘게생각합니다.

www.facebook.com/voiceofnm을 통해 댓글도  
올려주시고 많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장 이경화

##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6년 1/2월호

발행일 : 2016. 3. 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f.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C & M**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H&R BLOCK** **NAMI ROYBAL**  
한국성명: 류정남  
TAX SPECIALIST 2



8201 Golf Course Rd NW  
Ste F-2  
Albuquerque, NM 87120  
Office: 505.792.0997  
Cell: 505.220.9372  
Fax: 505.792.7871  
nami.roybal@tax.hrblock.com

AVAILABLE  
YEAR-ROUND  
BY APPOINTMENT  
HRBLOCK.COM

**세금보고를  
해 드립니다**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Lunch  
11:30-2:30 Mon-Sat

Dinner  
4:30-9:30 Mon-Thur  
11:30-10:00 Fri, Sat  
4:00-9:00 Sun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at.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 양장피 잡채 \$17.95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